

# 업계소식

## BOILER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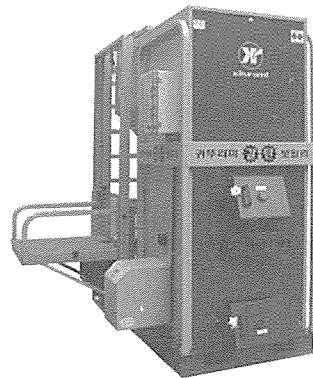
### 귀뚜라미, 업그레이드 갈탄보일러 출시 용도별 다양화 · 연료비도 최대 70% 절감

귀뚜라미보일러(대표 김규원)가 기존 제품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갈탄보일러 신제품을 출시했다.

귀뚜라미측에 따르면 이미 출시됐던 ‘귀뚜라미 갈탄보일러’는 고유가 고착화 현상으로 연료비 가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개발 요청이 많아 이 같은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이번에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제품과 가정용 제품으로 시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갈탄보일러는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전원주택, 대형창고 등의 농업용과 여관/모텔, 목욕탕/찜질방, 산업체 등의 숙박업소용으로 알맞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갈탄을 사용하는 고효율의 연료절약형 보일러이기 때문에 보일러 등유 대비 최대 70%, 면세유 대비



최대 60%의 난방비 절감효과가 돋보인다.

이밖에도 과열방지기능과 저수위방지기능을 갖춘 각종 안전제어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옵션사항인 원격제

어 시스템을 장착하면 자동 제어가 가능해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소비자들의 편의를 생각해 용량별로 각 사용대상이 각각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만 kcal 용량제품은 난방비 절약을 위한 모든 장소에 설치가 가능해서 비닐하우스용과 일반 난방용으로 판매된다.

다양한 용량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감안해 7만 kcal 제품은 주로 숙박업소 대상으로 3만5000kcal 제품은 30~60평 규모의 가정용으로 8월중에 출시된다.

한편, 귀뚜라미보일러는 갈탄보일러 전문점제를 도입해 전문점에서 갈탄보일러를 판매하고 설치, 관리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갈탄보일러 전문점을 통해 귀뚜라미는 고품질의 갈탄을 공급해 소비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가에서 구매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입자금 지원과 무이자 할부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귀뚜라미측이 현재 공급하고 있는 갈탄은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에서 검증된 무연중피탄으로 고정 탄소함유량이 일반 갈탄보다 높아 발열량이 월등하고 연소시간이 길어 효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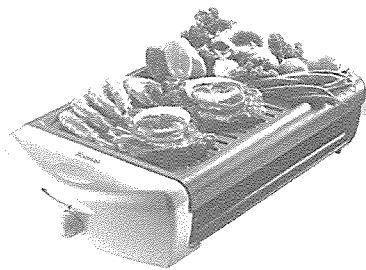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귀뚜라미 갈탄보일러는 기존 유사제품에 비해 제품성능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이 높아 겨울철 연료비 걱정을 덜어줘 농어촌 및 자영업자 수익증대와 연료비 절약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린나이, 할로겐 전기그릴 출시

### 원적외선으로 냄새와 연기 없는 요리 완성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원석)가 원적외선으로 고기의 맛을 살려주면서 냄새와 연기가 나지 않아 가정에서 각종 구이 요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린나이 할로겐 전기그릴(모델명 RHG-135HR, RHG-130HS)을 출시했다.

할로겐 램프와 세란 글라스(세라믹 강화유리)를 채용한 린나이 할로겐 전기그릴은 원적외선이 방출되며



육즙을 살려주는 시스템으로 원재료 고유의 맛을 살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할로겐 램프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은 육류 및 생선 등 음식의 겉과 속을 동시에 익혀 촉촉하고 감칠맛 나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점이 눈이 띈다.

특히 고온의 할로겐 빛으로 구우면 일반 전기 열선을 사용하는 전기 그릴에 비해 냄새와 연기가 적어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음식의 기름기도 빼주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손쉽게 웰빙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빛으로 빠르게 요리가 가능해 조리시간도 단축돼 경제적이다.

이번 할로겐 전기그릴은 간편한 다이얼 조작으로 각 요리에 맞는 조리온도를 맞춤 설정할 수 있는 자동 온도조절기능이 장착돼 더욱 맛있고 편리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3중 불소코팅 불판은 음식이 붙는 것을 방지해주고 쉽게 분리해 세척이 가능하며 분리형 기름받이 역시 요리후 본체에서 간편하게 분리해 청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린나이 할로겐 전기그릴은 사용자의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바이메탈식 스위치를 탑재해 제품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시켜주며 전도 스위치를 장착해 사용 도중 제품이 이동하거나 넘어질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 안전한 기능이 돋보인다.

컬러는 와인레드와 메탈실버 두가지며 가격은 13만 9000원.

린나이코리아 김범석 홍보팀장은 “린나이 할로젠 전기그릴은 타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 가정용 조리 기기로서 최적의 제품”이라며 “그동안 집에서 즐기기 어려웠던 각종 구이 요리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롯데기공, 에너지위너상 수상

### 그린빌딩부문서 하이큐 콘덴싱 10+보일러 선정

롯데기공의 하이큐 콘덴싱 10+보일러가 ‘2007 올해의 에너지 대상 및 에너지 위너상’에서 그린빌딩 부문 에너지위너상을 수상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에너지위원회가 주관하고 산업자원부, 환경부 및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가 후원하는 ‘올해의 에너지대상 및 에너지위너상’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소비 확산을 위해 1997년에 제정됐다.

이 상은 녹색기기, 녹색조명 및 설비, 고효율 자동차, 건물 등의 제품, 기술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활동부문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이룬 제품이나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에너지위너상을 수상한 롯데는 국내 최초로 가스보일러 국산화에 성공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고

객만족 서비스를 통해 가스보일러의 선구자로서 뚜렷한 업적을 쌓아온 점이 인정됐다.

특히 이번 수상제품인 ‘HI-Q 콘덴싱 10+’는 2개의 코일형 열교환기를 채택해 기존 일반보일러에 비해 가스비를 30%까지 절감시켜 주고 내구성이 강화돼 10년이상 사용해도 처음처럼 가스비를 절감시켜 주는 정통 유립형 콘덴싱 보일러라는 점이 수상의 주요 포인트가 됐다.



## 경동, GS퓨얼셀과 연료전지 협력

### 조인식 갖고 콘덴싱 난방 공동 개발키로

경동보일러가 연료전지 업체 GS퓨얼셀(대표 배준강)과 기술협력 조인식을 갖고 가정용 연료전지를 이용한 난방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동보일러와 GS퓨얼셀은 지난 6일 경동보일러 서울사무소 16층 대회의실에서 양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협력 조인식을 체결했다.

연료전지는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수소연료의 가치가 증대되면서 꾸준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GS퓨얼셀은 지난 2002년 세계 최초로 50W급 노트북용 연료전지를 개발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국내 최초로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시제품을 개발하며

한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동보일러는 연료전지 시스템의 난방부분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경동측에 따르면 연료전지 시스템은 가정에서 전기와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수 있는 구조지만 그 자체만으로 난방부분을 감당하기 힘들데 이때 추가적 열원이 필요하며 이 부문에서 경동의 콘텐싱 기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콘텐싱 기술은 일반보일러에는 없는 '잠열응축기'를 통해 열효율을 약 23%까지 끌어올린 기술로 가스비로 환산하면 한달에 약1만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경동측의 설명이다.

경동보일러 김철병 사장은 "연료전지 시스템 사업은 국가 미래 전략사업이다"며 "연료전지 기술 우위에 있는 GS퓨얼셀과 협력하게 돼 기쁘며, 에너지절약을 위해 콘텐싱 기술을 접목시킨 초일류 제품 개발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열저장과 활용한 'Cogeneration unit(열저장 장치-보일러, 축열탱크, 케이스가 조합된 형태)'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GS퓨얼셀은 Cogeneration Unit 사양과 제어부문 조합 기준을 제시하고 경동보일러는 보일러, 축열탱크, 보일러제어기, 케이스가 조합된 형태의 완제품을 제작해 공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동은 연료전지 실증연구 참여와 연료전지 부품개발 및 마케팅, A/S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연료전지란 수소와 산소가 가진 화학적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기화학적 장치를 말하며 유해물질(NOx)배출량이 석탄에 비해 1/38밖에 되지 않아 무공해 에너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발전 시스템은 도시가스 등을 연료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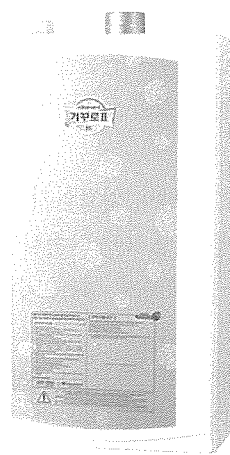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2003년부터 1억2000만달러를 투자해

수소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는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해 정부차원에서 육성 발전시키고 있다.

유럽에서도 연료전지 업체와 메이저 보일러사가 손잡고 열저장장치를 개발중에 있다.

## 거꾸로II 보일러, 일류브랜드 대상

서울경제신문 주최 히트부문서



귀뚜라미보일러(대표 김규원)의 '거꾸로II 가스보일러'가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2006 상반기 대한민국 일류브랜드 대상'에서 히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귀뚜라미는 우수한 품질과 제품을 차별화한 마케팅으로 일류브

랜드의 입지를 쌓아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6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은 기업들의 우수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브랜드를 통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 우수한 최고 브랜드를 선정하는 상이다.

시장점유율, 브랜드인지도, 대고객서비스, 소비자선호도의 네가지 심사항목에 따라 백상경제연구원 심사위원의 심의를 통해 히트/글로벌/장수/이미징브랜드의 4개 부문으로 구분돼 선정된다.

'거꾸로II 가스보일러'는 귀뚜라미보일러의 기술력이 집결된 제품으로 위에서 아래로 연소되는 하향식

연소방식을 채택했다.

연소된 화염이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기존 보일러에 비해, 보일러 위에 버너가 설치돼 화염이 위에서 아래로 한번 돌아나가는 하향식 연소구조로 두 번에 걸쳐 열교환이 이뤄지는게 특징이다.

따라서 기존 가스보일러에 비해 효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됐으며 연료비절감은 물론 소음이 적고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라는 점이 인정돼 이같은 상을 수상하게 됐다.

귀뚜라미측에 따르면 이번에 대상을 받게된 가장 큰 이유는 귀뚜라미만의 특허기술인 특수 연관을 사용해 기존 제품보다 효율을 더 높여 고효율을 자랑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온돌문화에 적합한 저탕식 열교환기 구조로 관수용량도 많아 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언제나 일정한 온도의 온수를 풍부하게 사용할수 있다.

한편, 귀뚜라미측은 이번 수상으로 최고 보일러 브랜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제품의 마케팅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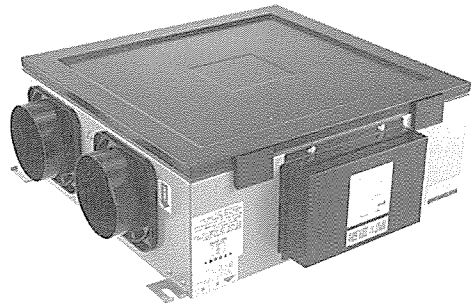
## 롯데 환기시스템, 대형 프로젝트 수주

### 항학동 아파트 재개발에 1540여대 공급

롯데기공의 폐열회수환기장치 '블루 패스(blue path)'가 환기시스템 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롯데측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중구 항학동 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1540여대를 수주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환기시스템 시장에서 단일 수주 건으로는 눈여겨볼 만한 성과다.



이곳에 납품될 예정인 폐열회수환기장치는 기존 제품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최신행 '블루 패스'시스템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보완된 기능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롯데기공 시스템사업부 조성문 차장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BLDC 모터를 채용해 기존 제품보다 소음을 10%정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By-Pass 기능을 탑재했는데 이 기능은 주방 레인지 후드 작동시 거실·주방의 배기를 차단하고 주방 급기만 공급하는 기능으로 주부들의 편리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기 보 상 히터를 채용해 외기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질 때 작동돼 급기 온도를 보정함으로써 결로현상을 방지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폐열회수환기장치(HRV)는 오염된 실내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유입시켜 열을 회수해 실내 공기의 질을 쾌적하게 유지시키는 시스템이다.

환기시장의 총 규모는 2008년까지 약 5500억원 규모로 현재의 10배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고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설비 설치기준이 마련됨과 동시에 친환경 건축자재로 지은 주택이 아니면 입주를 꺼려하는 웰빙 문화의 확산은 업계에겐 희망적인 미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린나이, 대학생 광고 공모전 성황

TV·인쇄매체부문서 총 1078건 출품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원석)가 지난달 30일 '제1회 린나이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대상부터 동상까지 모두 9개의 수상팀을 발표했다.

린나이측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린나이 대학생 광고 공모전은 린나이의 첫 광고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전접수 1604건과 실제 출품 1078건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린나이 가스보일러'와 '썬인웰 브랜드 PR'의 두 주제로 TV 광고와 인쇄광고 각 부분에서 진행된 린나이 대학생 광고 공모전 수상팀은 린나이코리아 홈페이지(www.rinnai.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목원대학교 Best desinger팀의 '아이들의 미술시간'(TV광고)은 학교 미술시간에 따뜻함이라는 주제를 받은 한 아이가 집에서 느끼는 보일러의 따뜻함을 생각하며 린나이 가스보일러를 그린다는 주제로 대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금상은 방송통신대의 ch1002팀이 '전세 집'과 동명대 딸기쉐이크팀이 '당신의 꿈을 썬인웰에서 그리세요' 등 2팀이 수상했고, 은상에는 홍익대의

프랑슈가팀의 '린나이 보일러를 켜두셨군요'와 한동대 colorful life팀의 '썬인웰이 추구하는 생활의 수준'이 각각 금상과 은상을 차지했다.

또한 동상에는 연세대 열광팀의 '한통화로 따뜻함을, 포근함을'과 경기대학교 상상부식돌팀의 '손끝으로 전하는 가족사랑'과 한양대 HY united팀의 '골드라벨'과 목원대의 목원브라더팀의 '생활미학 썬인웰' 등 대상부터 동상까지 모두 9개팀이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린나이측은 대상 1팀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를 전달하고 금상 2팀에는 200만원을, 은상 2팀에는 100만원, 동상4팀에는 5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수여하고 입상자 전원에게는 린나이코리아 입사 지원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광고전을 기획한 린나이 홍보팀 김범석 팀장은 "생각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출품을 해 린나이의 인기를 새삼 실감했다"며 "린나이코리아는 신선하고 다양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마케팅에 적극 반영해 더욱 젊은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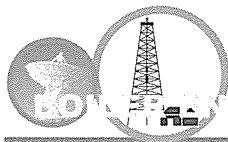
## 귀뚜라미 연료전지 사업 탄력

산자부 선정 기술과제 개발 본격화

귀뚜라미보일러가 가정용 연료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2006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중 10kW급 상업용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보일러 업계 최초다.

귀뚜라미는 3년간의 개발기간과 약 60억원의 투자비로 퓨얼셀 파워, 유니슨, 플라스포 등과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부분은 보조



버너 탑재 co-gen모듈 개발, BOP 부품의 국산화 개발, 열의 효율적 이용기술개발, 장기운전 성능평가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귀뚜라미관계자는 “BOP 부품 관련 기술의 국산화는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현재 외국에 의존하는 부품류를 국산화함으로써 선진 기술력 축적과 막대한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며 “연료전지 시스템의 가격 경쟁력을 통한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귀뚜라미가 참여하는 10kW급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사업은 고유가 극복과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차세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선두 업체로 각광 받을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귀뚜라미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연료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고효율 주택인 '3리터 하우스'의 가정용 연료전지 부분에 퓨얼셀 파워와 공동으로 개발 참여한 상태다.

귀뚜라미는 그 과정에서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제어 및 회수해 난방과 온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폐열회수 시스템 보일러를 개발해 실용화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 보일러사들, 수해복구에 앞장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귀뚜라미보일러, 경동보일러, 린나이코리아, 대성셀텍이 복구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장마철 보일러 관리는 되도록이면 물에 젖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올해는 예측할 수 없는 침수피해로 집집마다 보일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보일러 제조업체들은 수해복구 전담팀을 구성하고 무상으로 보일러 부품 서비스를 행사하는 등 A/S관리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현재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귀뚜라미 서비스 요원이 수해지역을 직접 찾아가 침수된 보일러를 현장에서 즉시 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측은 서울 양평동, 강원도 진부면, 평창면, 용평, 영월 등의 수재민들을 위해 별도의 수해복구 전담팀을 구성해 70여명의 서비스 요원을 급파하고 26일 현재 200여건에 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동보일러도 갑작스런 호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수재복구 A/S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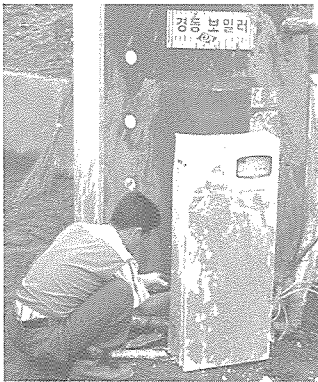
## 롯데기공 부산지사 대형 전시장 열어 생산 전 제품 갖추고 고객 접점 확대

롯데보일러 지사중 가장 큰 영업실적을 거두고 있는 부산지사(지사장 임채만)가 최근 동래구 수안동에 사무실과 전시장, 교육장을 겸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이전 오픈했다.

롯데측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이전한 부산지사는 사무실과 전시장, 교육장을 골고루 갖춘 총 100여평의 대규모로서 롯데기공 1등 지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롯데기공에서 부산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연 최고.



경동보일러는 이번 비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강원도 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A/S 서비스는 물론 내구성 부품까지 100% 무상처리 하기로 해 차별화된 고객만족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경동측은 피해가 심각한 평창군에서는 현장접수를 받고 있으며 인제군의 경우 도로가 복구되는 대로 현장에 서비스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린나이코리아도 고객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침수된 가스레인지와 가스보일러를 현장에서 즉각 수리해 수재민이 기본적인

식사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긴급 복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린나이는 각각 10여명으로 구성된 수해복구팀이 강원도 평창군 등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고장난 가스제품을 복구해주고 있어 수재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대성썬텍도 폭우로 인해 수해지역의 수재민들의 한숨을 덜어주기 위해 복구작업에 나섰다.

대성측에 따르면 현재 대성썬텍은 본사와 대리점으로 구성된 긴급 서비스팀이 강원도 인제, 평창 및 서울의 양평 등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을 대상으로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성측은 장마피해를 입은 수재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5년이상 보일러를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점검 서비스와 보일러 교체 시 배관청소 무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기공의 전체 보일러 판매량중 경상남도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의 점유율이 30%를 차지할 정도다.

롯데기공 전국 대리점중 판매량 순위가 10위 안에 포함된 곳 중 5곳 이상이 이곳 부산지사 관할인 만큼 대리점이 전체적으로 판매실적이 뛰어나고 경쟁사 대리점과의 싸움에서 승리 할 수 있는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사 전시장에는 보일러뿐만 아니라 GHP, 환기시스템, 커피자판기 등 롯데기공이 생산하고 주력하고 있는 전 제품들이 모두 전시돼 있다.

또 고객들과의 접점 마련을 위해 사무실 공간에 최신 컨퍼런스 룸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별도의 교육시설을 마련해 롯데제품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부산지사 임재만 지사장은 “부산지사가 좋은 실적을 거두고 시장내 경쟁에서 우위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한 고객관리 및 지역 대리점과의 끈끈한 팀워크에서 비롯됐다”며 “외관자체가 깔끔하고 지사안내를 하는 사인이 시원하게 설치돼있는 새 부산지사는 인구가동이 많은 동래 결찰서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고객들의 발걸음이 점차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한냉동협회, GHP 제품검사 참여

냉동공조협회 이원화, 경쟁 불가피

대한냉동협회가 GHP 제품검사에 참여함에 따라 사실상 독점구조였던 GHP 제품검사 체계가 깨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냉동협회(회장 오후규)는 최근 GHP를 신규 검사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련업계에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GHP 제품검사기관간의 경쟁

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GHP 정밀검사는 가스안전공사가, 제품검사는 한국냉동공조협회가 맡아왔다.

대한냉동협회는 냉동·공기조화에 관한 공학 및 기술의 연구발전과 냉동 및 공기조화기술인의 상호 교류를 통해 냉동·공기조화산업 진흥에 기여키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로 1965년 설립됐다. 2004년 KOLAS 국제공인검사기관 인정을 획득했으며 건축 및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 중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제외한 시설 정기검사와 1999년 7월부터 자체안전관리 사항으로 변경돼 실시되고 있는 자율검사 대행 및 냉동기, 특정설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검사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대한냉동협회의 GHP 제품검사 참여에 대한 관련업계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업체에서는 검사지연 해소, 검사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에서는 오히려 검사기관간의 경쟁으로 인한 제품검사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LS전선, 전주시대 개막

4만6,000평부지 최신설비 갖춰

LS전선(대표 구자열)은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기계사업본부가 지난해 9월 트랙터사업부를 시작으로

최근 사출기와 공조사업부가 전북 전주로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주시대를 알리는 준공식을 13일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완주 전북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등 지역관계자와 구자열 부회장, 심재설 기계사업본부장 등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LS전선 전주공장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전북과학산업단지 내 4만6,000평 규모의 부지에 트랙터, 사출기, 냉동공조기 등의 최신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복리를 담당할 복지동과 인근에 약 250여 세대의 사원용 기숙사와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전주로 이전한 트랙터사업부는 10월에 트랙터 1호 제품을 생산한 바 있으며 최신 생산설비를 비롯해 첨단 트랙터 주행테스트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최근 이전을 완료한 사출기사업부의 경우 소형사출기 및 전동식 사출기 생산라인을 흐름생산이 가능토록 했으며 14개의 생산셀(Cell)을 구성해 소형 및 중형 사출기의 혼용 생산이 가능토록 했다.

빌딩 냉난방시스템을 생산하는 공조사업부도 생산라인의 Compact화를 통해 생산효율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전주시대를 연 기계사업은 지난 1983년 한국중공업 군포공장을 인수한 사업으로 지난해 매출 3,880억원, 영업이익 230억원 등 2년 연속 대규모 흑자를 실현함으로써 LS전선의 효자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업이다.

LS전선 기계사업본부는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 대비 15% 이상 상승한 4,500억원으로 정했으며 전주 이전을 계기로 사업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사출기, 중·소형 트랙터 및 공조기 분야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한다는 비전도 함께 수립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구자열 부회장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기업,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사업장이 될 것"을 당부했으며 "완주군과 전주시는 물론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 제품인증기관 지정

품목 확대 · 제도도 개선키로, 에관공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가공인 제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지난 27일 에너지관리공단 본사 회의실 5층에서 개최된 인증식에서 에관공 이인영 부이사장과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성호 소장, 기술표준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인증식과 현판식을 진행했다.

인증식에서 이인영 부이사장은 "공단은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증은 소비자들의 기술 신뢰도 제고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인증을 시발점으로 경쟁력 확보와 사회 분위기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가공인 제품인증기관은 기술표준원 한국제품인증기구(KAS : Korea Accreditation System)에서 ISO/IEC Guide 65(제품인증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 및 IAF(국제인증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아 인증시스템 및 운영 능력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성호 소장에 따르면 현재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등 14개 품목에 대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WTO/TBT(기술무역장벽), MRA(상호인정협정), 범정부적인 인증제도 개선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간 KAS 지정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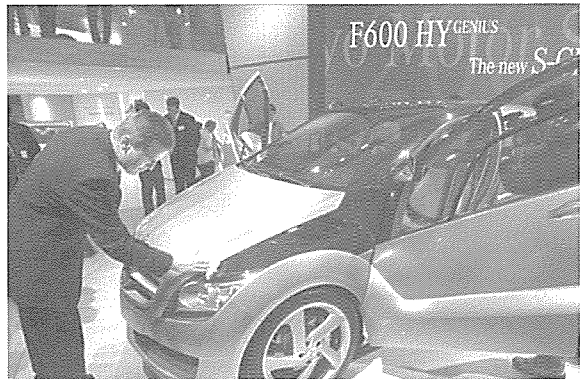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번 KAS 지정을 통해 인정기관으로서 국내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제조업체는 저렴한 인증비용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게 됐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센터 이성호 소장은 “향후 IEC(국제 전기 위원회)로부터도 국가인증기관(National Certification Body)을 취득할 계획으로 인증품목 확대, 인증시스템 개선 등 국내외 고객들에게 신뢰성 있는 제품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소연료전지차, 시범운행 ‘스타트’

산자부 - 민관 480억 투입 모니터링사업 추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산업자원부는 연료전지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및 경쟁력확보 지원을 위한 ‘수송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에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국비240억, 민간투자 240억 등 총 4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료전지자동차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연료전지(Fuel cell)가 전기모터를 구동시키는 자동차로 기존 가솔린자동차 대비 에너지이용효율을 최대 3배까지 개선시킬수 있고 이산화탄소가 최대 50%까지 저감된다.

현재 연료전지자동차는 석유에 의존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미래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은 연료전지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연료전지승용차 및 버스개발을 SK, GS칼텍스, 가스공사 중심으로 수소스테이션 개발을 추진중에 있지만 본격적인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실제 주행환경에서의 성능 및 내구성 평가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수소스테이션 관련 인프라를 정부 주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2008년까지 국산연료전지를 탑재한 연료전지차량 34대를 전략적 위치에 투입·운

행하는 실도로 모니터링을 통해 연료전지 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술표준체제를 마련하고 전문부품업체를 육성, 수소충전소·법규정비등 인프라 구축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산자부는 수소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수소충전소는 1차년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2차년도에는 제주 풍력단지과 연계한 물전기분해 충전소를, 3차년도에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Truck-in 방식의 수소충전소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번 사업은 국내 자동차업체, 수소스테이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업체, 연구소·대학, 부품업체,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될 예정이며, 관련 부처 및 수소연료전지사업단 등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연료전지자동차 실용화 위원회'를 구성해 자료 분석·보고 및 자문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올해에는 4대의 80kW급 연료전지 승용차의 기준가격을 10억원으로, 200kW급 연료전지 버스의 기준가격을 30억원으로 산정하고 1대를 시범보급 및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료전지의 핵심부품인 스택 등은 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며 국산화 비율은 50% 수준으로 끌어 올릴 예정이다.

## 코퍼스트 김정호대표 골프대회 우승

'2006 경향하우징 가족 한마당 하계 세미나'에서

코퍼스트 대표(김정호)는 지난 6월 29(목)~6월 30(금) 2일간 강원도 고성군 소재 파인리즈 컨트리 클럽에서 2006 경향 하우징 가족 한마당 하계 세미나 참석하여 골



프대회에서 우승하였으며 장타부분에서도 1등을 하였다.

경향하우징은 관련업계의 발전과 회원사 임직원가의 정보 교류 및 친분을 다지고 전시회의 개선점 들을 토의 하고자 경향하우징 가족 한마당 하계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사업, 토론, 골프로 나누어 1박2일 동안 실시하였다.

행사 목적은 참가 회원사의 친목도모와 건축/인테리어 관련정보 교류 및 토론, 참가사들의 향후 전시회 활성화 방안 모색, 경향하우징 B2B e마켓 플러스 설명회 및 참여 방안 등을 논의 하였으며 참가자 및 자격은 경향하우징 참가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경향하우징 페어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경향하우징 페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자재 전시회로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향하우징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에는 참가사 및 관련업계 여러 분들이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심야기기, 온수기 관련업계의 기사를 모집합니다. (02-409-5204)**